

---

# 대나무

---

강 상 준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장)

「대나무」하면 나는 조선 인조 때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가 연상된다. 그는 자신의 다섯 벗으로 수(水), 석(石), 송(松), 죽(竹), 월(月)을 소개했는데, 그 중 대나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모도 아닌거시 풀도 아닌거시  
    곳기는 뉘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는다  
    더러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도하하노라”

이 시처럼 대나무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식물이지만 일반적으로 벼과(禾本科)에 딸린 여러해살이 늘 푸른 나무(木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외떡잎식물(單子葉植物)로 관다발(維管束)은 있으나 부름켜(形成層)가 없기 때문에 몇 년을 자라도 굵기생장(肥大生長)과 높이생장(樹高生長)은 하지 않고 단단히 굳어지지만 하기 때문에 나이테가 생기지 않으므로 보통 나무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후죽순(雨後竹筍)이란 말이 있듯, 봄(4~6월)에 땅속줄기의 마디에서 나온 어린 죽순(bamboo shoot)은 생장이 아주 빠르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

만 하루에 평균 50~60cm씩 자라고 어떤 종류는 무려 110cm까지 자라기도 한다. 죽순이 큰 대나무로 자라는 기간은 보통 30~45일인데, 이 기간에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자라고 또 굽어져서 다음 해부터는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굽어지지도 않은 그저 단단히 굳어지기만 하는 것이다. 대나무가 훌쩍하게 자라느냐, 통통하게 자라느냐는 죽순 때 결정이 된다.

죽순이 빨리 자라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한다. 그 하나는 다른 식물은 줄기와 뿌리 끝에만 생장점이 있지만, 죽순은 모든 마디(節)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왕성하게 세포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죽순 껍질에 생장호르몬이 있기 때문이다. 생장호르몬이란 세포를 분열시키고 또 분열된 세포를 크게 자라도록 하는 물질인데, 죽순에는 줄기 자체에 보다는 껍질에 더 많은 생장호르몬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죽순에서 껍질을 제거해 버리면 자라지 못하여 난쟁이 대나무가 된다.

대나무는 한자로 죽(竹)이라 쓰는데, 오래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중국 남쪽지방의 음(南方音) <텍(tek)>이 따라 들어 온 후, 끝소리 <ㄱ>음이 사라지면서 <대>로 변했으며 일본에서는 두 음절로 나뉘어져 <다케, take>로 되었다고 한다. 영어의 <bamboo>는 원래 대숲이 불에 탈 때 “팍팍”하고 터지는 소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대나무는 열대로부터 온대에 걸쳐 널리 분포하는데, 몬순(monsoon)지대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한다. 대나무 종류는 동남아시아에 1,180종, 남미에 70종으로 전 세계에 무려 47속 1,250종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나무 종류는 3속 15종으로 알려져 있으나(이창복, 1975), 관상용 또는 기타 용도로 해마다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명확히 몇 종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것을 보면, 왕대속의 왕대(참대, *Phyllostachys bambusoides*), 오죽(*P. nigra*), 솜대(분죽, *P. nigra* var. *henonis*), 죽순대(맹종죽, *P. pubescens*), 반죽(*P. punctata*), 관암죽(*P. compressa*) 등 6종, 해장죽 속의 해장죽(*Arundinaria simonii*) 1종, 조릿대속의 조릿대(*Sasa borealis*), 갯대(*S. borealis* var. *chiisanensis*), 신이대(고려조릿대, *S. coreana*), 섬대(*S. borealis* var. *gracilis*), 제주조릿대(*S. quel-*

*paertensis*), 섬조릿대(*S. kurilensis*), 이대(*Pseudosasa japonica*), 자주이대(*Pseudosasa japonica* var. *purpurascens*) 등 15종이 재배되거나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디대(*Phyllostachys aurea*), 귀주조릿대(*Sasa. gracilis*), 완도산죽(*S. chiisanensis* var. *wan-donia*), 산백죽(*S. albo-marginata*)을 포함하여 19종이라는 보고도 있다(정현배 1959).

왕대는 중국이 원산으로 죽순의 맛이 약간 쓰다고 하여 고죽(苦竹)이라고 하고 쓰임새가 다양하여 진죽(眞竹)이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가구나 공구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옛날 아낙네들이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곱게 빗질하던 빗이 왕대를 잘게 쪼갠 대오리로 만든 것이었다. 울산광역시 태화강변 십리 숲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왕대이다.

죽순대, 일명 맹종죽 역시 중국이 원산이며, 초여름 5월에 올라오는 죽순을 캐서 삶아 먹기 때문에 죽순대라고 하는데, 눈이 쌓인 겨울에 죽순을



《땅속줄기에서 나온 죽순》



《울산광역시 태화강변의 십리 대나무 숲》



《담양의 대나무 숲》



《강릉 오죽헌의 오죽》

께서 부모님께 효도한 맹종(孟宗)의 이름을 따서 맹종죽(孟宗竹)이라고 한다. 전남 담양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주로 맹종죽이며, 기타 왕대와 솜대도 재배하고 있다.

맹종죽(죽순대)에 대한 고사는 중국의 주자(朱子)가 편찬한 사자소학(四字小學)에 <설리구순(雪裏求荀) 맹종지효(孟宗之孝), 부빙득리(剖冰得鯉) 왕상지효(王祥之孝)>라는 구절에서 유래한다. 즉,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한 것은 맹종의 효도이고, 얼음을 깨어 잉어를 잡은 것은 왕상의 효도>라는 뜻이다.

맹종이란 사람은 삼국시대 오(吳)나라 강하(江夏) 지방의 효자로서 겨울철에 그의 어머니가 즐겨먹는 죽순이 없음을 원망하며 대나무 숲에 앉아 애원하고 탄식하자 홀연히 꿈꿨던 얼어붙은 땅속에서 죽순이 나타났다고 하며, 왕상은 서진(西晉)시대에 태보(太保)를 지낸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매섭고 추운 겨울 그의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어 하자 얼음이 두껍게 언 호수위에 누어서 얼음이 녹는 것을 기다렸다가 얼음이 얇아지자 얼음을 깨고 잉어 두 마리를 잡아 보양시켰다는 두 사람의 효심을 표현한 고사가 있다.

오죽은 강릉 오죽헌(烏竹軒)에 심어진 대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인 율곡(栗谷) 이이(李珥)선생이 태어난 집이고,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이 살았던 집으로 오죽헌 안에 있는 율곡 선생의 사당 문성사(文成祠) 옆에는 줄기가 검은색을 띠는 대나무 <오죽>이 지금도 많이 자라고 있으며 흔히 관상용으로 큰 화분에 심어 집안에 두기도 한다.

솜대는 이름처럼 대나무 마디 아래쪽에 솜처럼 하얀 가루가 붙어있어 분죽(粉竹)이라고 하며, 줄기는 예쁘게 쪼개어서 죽세공품, 예를 들면 과자를 담은 그릇으로 사용되고 죽순은 맛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감죽(甘竹)이라고도 한다.

해장죽은 동남아시아에 약 150여종이 분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중부와 남부에 1종만 자라고 있으며, 마디가 다소 길고 처음에는 하얀 가루가 덮이나 차츰 없어지며 높이는 6m, 굵기는 1~3cm 정도이다. 부채를 만들거나 낚시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4 재미있는 야생 동·식물 이야기

조릿대속은 8종이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 속명 *Sasa*를 가지고 있는 종류는 6종이다. 조릿대의 속명 *Sasa*는 '작은 대나무'라는 일본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고, 종소명 *borealis*는 '북방계의'란 뜻으로서 <북방의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작은 대나무>라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dwarf bamboo(키 작은 대나무)라고 한다.

우리들은 가끔 중국 대륙의 살아있는 1급 보호동물인 팬더(panda)의 앙증스런 모습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볼 기회가 있다. 팬더는 주로 중국 북서부 지방과 티베트 동부지역의 해발 1,800~4,000m의 높은 지대에 있는 숲속에 사는데, 이 팬더의 주된 먹이가 바로 죽순이나 조릿대의 잎이다.

또, 아프리카 마운틴 고릴라(mountain gorilla) 역시 숲 속에서 나무 열매, 뿌리 외에 조릿대를 먹이로 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일본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슴 무리도 눈 덮인 겨울철에는 주로 조릿대를 먹이로 한다.

이와 같이 조릿대는 전 세계적으로 숲 속 임상식물의 구성종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의 먹이로 이용된다.

우리나라 삼림의 임상(林床)에 주로 자라고 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대나무 종류가 조릿대이다. 요즈음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쌀이나 잡곡으로 밥을 지어 먹을 때 모래가 밥 속에 들어있어 이빨이 상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쌀에 들어있는 돌이나 모래를 걸러 내거나 제거하는 기구를 사용했다. 이 기구를 조리(箒籬)라 하고, 이것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대오리를 엮어서 조그마한 삼태기 모양으로 만든 쌀을 이는 기구를 말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작은 대나무가 조릿대로서 조릿대라는 이름은 조리를 만드는 대나무란 뜻에서 유래했다.

그러면 이런 대나무 종류도 다른 식물처럼 꽃이 필까? 당연히 필다. 다른 식물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 종족을 번식시키지만, 대나무는 주로 땅속줄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니 꽃을 피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기는 피지만 종족 번식을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나무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60~100년 주기로 꽃이 피며, 어떤 종류는 120년에 한번 씩 개화한다. 이상하게도 꽃이 핀 후에 대나무 무리는 일제히 죽는다. 특히 왕대나 죽순대(맹종죽)와 같은 큰 대나무 종류는 개화



《조릿대의 꽃》



《조릿대》



《조릿대의 대오리를 이용하여 조리를 만드는 팔십대 어르신과 완성된 조리(속리산)》

주기가 100여년이고, 조릿대의 경우는 4~6년마다 개화하는데 개화 후에는 모두 말라 죽어 버린다.

나는 어릴 적 할아버지로 부터 대나무가 꽃이 피면 전란이 일어나거나 세상이 소란해지는 소위, 난리(亂離)가 난다고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내 나이 9살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의 집 뒤뜰에 울창했던 대나무(숨대) 숲은 꽃이 피었었고 그 다음 해인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대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을 흉조로 알려져 왔던 것일까? 이것은 잘못된 기우이고 우연이 일치라고 생각한다.

인생 칠십 고래희라는 말이 있듯 대나무 수명보다 사람의 수명이 짧은 것을 간과한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어느 한 세대는 대나무의 개화주기보다 짧았기 때문에 대나무 꽃이 핀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기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1957년부터 전라도 지역의 왕대 숲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여 전국의 왕대가 다 고사된 예도 있으며, 2008년 9월 28일부터 경남 거제도 일대의 죽순대 숲이 전부 개화한 적이 있었지만 큰 난리는 일어나지 않았지 않은가?

대나무의 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주기설(週期說), 환경설(環境說) 그리고 효소설(酵素說) 등이 있다. 주기설은 대나무 고유의 성질이나 속성에 의해서 개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설이고, 환경설은 양분의 결핍, C/N율(식물체 내의 탄소·질소의 비율로서 그 값이 높아지게 되면 꽃눈형성(花芽形成)이 되어 꽃이 핀다.), 기후의 건조 등 외부조건이나 영양상태가 개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설이며, 효소설은 특정 효소가 부족해서 개화한다는 설인데, 어느 설이 결정적인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대나무를 이용한 역사는 대단히 오래이다. 활, 화살은 물론, 죽부인, 죽세공품, 각종 생활도구, 생울타리 등을 만들었고, 요즈음은 죽염치약이니, 죽염이니 하는 색다른 상품도 나와 있다. 특히 종이가 없을 때 죽간(竹簡)이라 하여 책의 효시가 되기도 하였다. 종이만큼 인류의 문화향상에 공헌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이집트(Egypt)에서는 4,000년 전에 파피루스(Papyrus)라는 식물의 줄기를 눌러서 만든 것 위에 상형문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으며, 이런 유물들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동양에서는 그보다 훨씬 늦은 2세기경에야 중국에서 처음으로 종이를 만들어 썼다고 하는데,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이미 문자가 있었고 종이는 없었으니 이를 전할 기록수단이 필요했다. 이 때 종이 대신 사용된 것이 바로 죽간(竹簡)이다.

죽간이란 대나무의 마디를 잘라내고 마디사이를 세로로 쪼개 얇게 다듬은 다음 불에 쪄이면서 기름을 빼내어 먹물, 즉 옷이 잘 스며들고 또 벌레가 먹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길이는 20~25cm이고, 너비는 몇 cm로 글씨를 한 줄씩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죽간이다. 죽간을 가죽이나 비단실로

엮는데 몇 장의 죽간을 엮은 것을 죽책(竹冊) 또는 죽책(竹策)이라 한다.

인류의 문화 향상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책이 바로 대나무로 만든 죽간에 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들은 사극에서 정보나 의사 전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장면을 가끔씩 볼 수 있고 조선시대에도 왕세자비(王世子妃)를 정할 때 죽간에 책본문(冊封文)을 새긴 간책(簡冊)을 내리곤 하였다.

또한 대나무는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의 상징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시(詩), 서화(書畵)에도 빠지지 않는 대상이었다. 대나무의 줄기는 곧고 마디는 굳게 단혀 있어 강직하며 좀처럼 쪼개지지 않지만, 쪼개진다면 세로로만 쪼개지는 것이 불의와 일체 타협하지 않는 지조있는 선비의 그 모습과 같다.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는 타협을 제외한 이성계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의 어떤 다리 위에서 이방원 일파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런 뒤 그 다리 위 돌에 붉은 반점이 나타남으로 이 붉은 반점을 정몽주의 핏자국이라 하여 다리 이름을 선죽교(善竹橋)라 부른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혈죽도(血竹圖)라는 그림도 있다.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에 항거하기 위해 민영환이 자결할 때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보관했던 방에서 1~2m 정도 되는 대나무 네 줄기가 자랐다고 하여 그런 그림으로 이 역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양죽기(養竹記)에서 <대는 여물고, 바르고, 속이 비어 있고, 곧은,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를 각각 수덕(樹德), 입신(立身), 체도(體道), 입지(立志)라는 상징적 덕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2005년 작고한 오주석의 유고작(遺稿作)인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중에서(2009)>라는 책을 보면,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나무는 풀도 아니요 나무도 아니다. 사람이다. 그것도 대단히 어진 사람이다. 식물을 왜 사람, 그것도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가? 다섯 가지 훌륭한 덕을 지녔기 때문이다. 첫째, 대나무는 뿌리가 굳건하다. 어진 이는 그 뿌리를 본받아 덕을 깊이 심어 뽑히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둘째, 줄기가 곧다. 몸을





《손자병법이 쓰인 죽간》



《무더위를 이기는데 필요한 죽부인》



《세종대왕의 현손인 탄은 이정(1541~1622)의 묵죽도(좌)와 풍죽도(우)》

바르게 세워 어느 한편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셋째, 속이 비어 있다. 텅 빈 마음으로 도를 체득하여 허심으로 남을 받아드린다. 넷째, 마디가 반듯하고 절도가 있다. 그 반듯함으로 행실을 같고 닦는다. 그리고 다섯째, 사계절 푸

르러 시들지 않는다.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지녔다. 대나무는 대인군자(大人君子)의 상징이다. 그래서 대개 짐작은 먹빛으로 그린다。」

대나무 그림을 보면 꽃이 없다. 대나무는 매화, 난초, 국화와 함께 사군자(四君子)로 일컬어지는데, 벌이나 나비는 꽃이나 꽃향기를 찾아드는 소인배(小人輩)로 비유되기도 하여 화가는 대나무를 그리고 꽃을 그려 넣지 않는다고 한다.

청나라 때 서화가였던 판교 정섭은 석죽도(石竹圖)를 그리고 <한마디 또 한마디, 가지가 천개요 잎이 만개, 내가 꽃을 그리지 않는 것은, 벌과 나비 모여 드는 것 싫어서 라네>라는 시 한수를 써 넣기도 하였다.

당나라 시선(詩仙) 이백(李白)은 그의 시에서,

“문을 여니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기에  
혹여 옛 친구(故人)가 찾아 왔는가 했네”

라고 하여 대나무를 옛 친구라고 표현했다.

대나무에 대한 칭송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노산 이은상 선생은 일제시대에 오랜 옥고를 겪으면서도 전연 굴하지 않았던 한글학자 정인승 선생을 대나무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곧다 곧다 한들 너처럼 곧들라고  
비바람 불어쳐도 허허 꺾꺾 웃음 짓고  
차라리 꺾어질망정 굽힐 줄을 모른다”

이와 같이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 시나 서화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에는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죽림욕(竹林浴)이나 생태공원, 나아가 문화갤러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늘위로 쪽쪽 올라간 대나무 숲 사이로 청량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맑은 공기를 뿜어내어 시원함을 주며 땀의 향기는 신선의 도량(道場)인 냥 상쾌함을 선사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 잘 났다고 하는 지식인들을 보면 조상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지조나 절개는 찾을 수 없다. 대나무의 우아한 곡선과 날씬한 모양에서 예지(叡智)의 모습을 찾아보고 밑으로 숙인 댓잎과 빈속에서 겸손과 덕을 본받고, 대나무에서 풍기는 고고한 기상에서 곧은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